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Discourse 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장 덕 현 (Durk-Hyun Cha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대상 |
| 2. 문헌정보학연구의 역사적 배경 | 1) 문헌정보학 연구의 패러다임 문제 |
| 3. 담론(discourse) | 2) 지식과 권력의 문제 |
| 4. 담론분석 | 3) 도서관운동사에 대한 접근 |
| | 6. 결 론 |

초 록

문헌정보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연구가 사회과학의 전반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방법론적 실험에 대하여, 우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문헌정보학 연구가 우리사회에서 문헌정보학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키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 한 예로 최근에 우리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론분석의 응용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분야에 있어서 연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담론분석의 간략한 전개양상과 담론분석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살펴본 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한다.

주제어 : 연구방법론

Abstrac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research, as reflected in its own disciplinary and professional history, has been ignorant of the transitions and developments of othe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isciplines. For instance, the positivistic perspectives in research have been maintained in the field while other disciplines have been experimenting wide variety of research methods and aspects.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that LIS research should play an appropriate role in analyzing and investigating various key-words in modern knowledge society. In this regard, it scrutinizes the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s of discourse analysis. It specifically survey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LIS research; then it explains the dimensions of discourse analysis and some principles; and, finally it shows some examples of research projects that employ these perspectives.

Key Words : research method

* 본 논문은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재 정리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ookem@hanmail.net)

· 접수일 : 2001. 5. 15

1. 서론

학문 연구자에게 있어서 그 학문 전반을 지배하는 “연구(research)”의 전통을 추적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와 같이 이 “연구”와 관련하여 학문의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¹⁾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서직(librarianship)이 상당기간 동안 도제(apprenticeship)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연구의 전통이 그다지 오래지 않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업무기능 연마와 실제적인 기능 전수를 중요시하는 입장과 이에 대항하여 학문의 이론적 철학적 가치에 비중을 두며 연구의 질과 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간의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운용능력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는 오히려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즉, 사서직이 그 이전의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기능들이라 할 수 있는 계획, 평가,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그 이론적 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린치(Lynch)는 도서관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당장 중요한 직업적 기능이 아니라 우리분야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공통적인 법칙들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기초가 공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²⁾ 또한 루빈(Rubin)은 사서직을 더 이상 개별적인 기능적 과제와 연결짓는 것은 오류이며, 오히려 지식, 정보, 사람, 그리고 사회의 속성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개념적 이해를 갖춘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이렇게 볼 때 학문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으로 학문분야 전반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그 응용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학문의 연구성과를 학문 전반의 공개된 경쟁의 장에서 검증받

1) Michael H. Harris. "The Dialectic of Defeat: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Library Trends* 34(1986): 515.

2) Beverly P. Lynch.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Rethinking the Librar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US GPO, 1989: 75-92.

3) Richard E. Rubin.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1998: 372-373.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대와 같은 이른바 정보화/ 지식기반/ 탈근대 사회는 이전에 미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던 다양한 연성의(soft) 키워드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 지식, 여성, 환경 등과 같은 이러한 키워드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정의 학문분야가 그들을 전유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사회가 생산해 내는 어떠한 이슈도 특정 학문의 독점적 영역에서 해석되고 해결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른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과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예를 수없이 보고 있으며, 그 속에 문헌정보학의 연구역량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결국 문헌정보학이 이제까지 주장해 왔듯 이른바 학제적인 학문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기여할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정의 문제는 문헌정보학이 주도적으로 해석할 것이며, 또 어떤 경우는 전문적 견해를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연구도 다른 학문분야와 함께 공개된 장에서 학문연구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문헌정보학 연구도 지식, 문화, 일상 등과 같은 현대 사회과학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화두로 삼아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헌정보학적 입장에서 관련 대상들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생소한 작업이 아니며,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미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 또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대상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담론분석의 간략한 전개양상과 그 일반적인 원칙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적용된 예를 소개할 것이다.

2. 문헌정보학연구의 역사적 배경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연구(research)”의 개념이 등장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기능”과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19세기 말 도서관학(librarianship)이 비로소 대학교과로서 등장하였을 때부터 이미 시

작되었다고 본다. 즉, 이 시기에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 처음 개설된 듀우이(Dewey)의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y Economy)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그 실무적인 교육방침과 내용으로 인하여 개교 초기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개교 다음해 컬럼비아의 프로그램이 뉴욕주 올바니(Albany)의 주립도서관학교로 이전되면서부터는 도서관직의 문화적,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옮겨가기도 하였다. 그 이후 듀우이의 컬럼비아 시절 제자들에 의하여 미국내의 다른 지역에 도서관학 교육과정이 설립 되었으나, 그 지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일부와 그에 반대하여 이론과 철학을 중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한 측이 나누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이후 한동안은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도 도서관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철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던 시기로서, 그 결정적인 계기는 기능중심 교육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된 윌리엄슨보고서(*Training for Library Service: 1923*)에 이르러서였다고 본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한마디로 당시 미국내의 도서관학 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서는 단순한 업무요원(clerical work)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전문직의 특성은 항상 이론을 다루며, 원칙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들로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반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를 지원한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은 이후 십 여 년 동안 미국 내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1백만불의 기금을 출연하여 1926년에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에 도서관학 대학원(Graduate Library School: GLS)을 개설하였으며 1928년 이곳에 최초의 박사과정을 설립하여, 그 이전의 도서관학 프로그램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이른바 “신종”(new breed)의 관점, 즉, 도서관학이 단순한 직업적 노하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매개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레이워드(Rayward)에 의하면 이 GLS의 설립과 더불어서 비로소 사서직(librarianship)의 업무기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이 GLS가 이전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도서관업무에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이렇게 도서관학을 하나의 견실한 과학(science)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시 이 GLS의 창립선언문 작성자이기도 하였던 버틀러(Butler)의 *도서관학개론(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과 같은 저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버틀러는 사서

4) W. Boyd Raywar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Disciplinary Differentiation, Competition, Convergence", in *The Study of Information: Disciplinary Messages*. ed. Fritz Machlup and Una Mansfield. New York: Wiley, 1983: 343-363.

들이 실용주의의 단순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서관학이 단순한 실무기술이 아니라 도서관을 매개로 발생하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역사적 현상들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⁵⁾ 즉,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서관학도 하나의 과학이며, 따라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던 과학적 방법들을 도입하고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리스(Harris)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입장은 단지 버틀러만의 생각은 아니었으며, 당시 GLS를 창립하여 활동한 4명의 교수들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었던 것 같다. 이들은 주로 사회학, 심리학 등의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학습을 활용하여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도입하기가 용이했던 면이 있었을 것이다.⁶⁾

그러나 당시로서는 신생학문이었던 도서관학이 그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 취했던 이러한 노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감각의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다. 즉, 과학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학문의 영역을 왜소하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마침내 1950년대에 이르러서 버틀러는 “사서직이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었다”고 지적하며, 사실은 이 과학주의가 도서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만연한 공시대적 문제라고 주장한다.⁷⁾ 버틀러가 말하는 공시대적 문제는 다름아니라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국 사회과학 전반을 장악해 왔던 실증주의(positivism)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는 한마디로 사회현상 속에서 어떤 일정의 법칙을 발견해 내며, 그 법칙을 근거로 현상을 설명하고, 통제하며 미래를 예측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은 이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며, 결국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미쳐서도 안된다는 가치중립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GLS의 초기에 이루어진 모든 연구 교육활동이 “과학성의 추구”에 집착한 것은 결국 당시에 만연한 실증주의라는 시대적 현상을 충실하게 답습한 결과라는 것이다.⁸⁾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기 동안에 미국 내 도서관학 프로그램을 이끈 엘리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GLS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미국 도서관학의 성격은 이 GLS의 관점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관점은 다름 아닌 당시의 가장 주된 관점인 실증주의였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입장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매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문헌정보학 연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과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⁹⁾

5)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6) Harris, 519.

7) Pierce Butler.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in *Landmarks of Library Literature, 1876-1976*. ed. Dianne J. Ellsworth and Norman D. Stevens. Metuchen, NJ: Scarecrow, 1976: 29.

8) Harris, 519.

9) Harris, 519.

이렇게 약 30년 동안을 풍미하던 실증주의는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사회과학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즉, 사회과학에 있어서 어떠한 패러다임은 결국 진실의 추구이기보다는 권위에 의해 창출된 정치적 영역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결코 사회과학 영역 내의 다른 군소 패러다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실증주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¹⁰⁾ 이러한 입장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은 나아가 실증주의 사회과학은 많은 오점을 남겨놓았으며, 사회과학자가 주관성과 선이해(preunderstanding)를 배제한 상태로 지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또한 사물을 연구할 때와 같이 가치중립적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콩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주관/객관의 이중구조로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과학 내에서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¹¹⁾

그런데, 1960년대 이후의 이러한 반실증주의 무드 속에서 문헌정보학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이른바 과학성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연구의 대상과 현상을 중요시하며, 이에 적절한 연구방법적 실험을 다양하게 취하는 동안에도 유독 문헌정보학은 여전히 실증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해리스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관점의 다양화라는 중요한 계기를 놓친 원인을 GLS 출신의 학자들로부터 찾고 있다. 즉, 다른 사회과학분야로부터의 지식 도입이 과도하게 되어 도서관학의 교육과정도 불균형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이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어 194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 학자들이 진출한 교육기관들에서는 더 이상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동향과 성과는 참조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학의 영역도 아닌, 심리학의 이야기도 아닌 도서관학만의 중심주제를 연구하자”는 움직임이 대두되게 되었고, 대학교육의 성장과 더불어 대학 내에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도서관학자들이 도서관업무의 중심주제로 삼은 것은 다른 아닌 실무적인 영역의 주제들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학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¹²⁾

말하자면, 실증주의 시대에 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을 도입한 도서관학은, 실증주의가 쇠퇴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교류하던 1960년대 이후의 시기에는 오히려 그 창문을 닫아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대안으로 기술과 실무 중심의 도서관학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¹³⁾ 이

10)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1) Thomas Bender, "Politics, Intellect, and the American University, 1945-1995." in *American Academic Culture in Transformation: Fifty Years Four Disciplines*. ed. Thomas Bender and Carl Schorsk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17-54.

12) Harris. 519

13) Harris. 522-525.

러한 한계 속에서 지난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그것들과 견줄만한 경쟁력 있는 연구가 생산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전통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1970년대까지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격렬한 비판이 등장하기까지 하였다.¹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또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다. 최근에 생산된 일부 연구들이 우리 문헌정보학이 미국의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경향이 정점에 달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성립되어 발전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노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 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과학계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류 사회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과학의 관점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등의 전기를 만드는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의 주류패러다임의 성격은 여전히 실증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3. 담론(discourse)

1980년대 후반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관심의 대상으로 문화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학계는 이른바 문화적 논리가 중요시되는 “문화의 시대”로 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¹⁶⁾ 이 문화연구의 영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문헌정보학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담론(discourse)을 꼽을 수 있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담론에 대한 관심 집중은 홀(Hall)이 이론적 혁명(contemporary theoretical revolution)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반다이크(van Dijk)는 이러한 담론에 관한 연구의 등장을 “최근 20년간의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⁷⁾

담론은 다름 아닌 언어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

14) Graham Jones. "This Incredible Stream of Garbage: The Library Journals, 1876-1975." *The Indexer*. 10(1976): 9-14.

15) 대표적인 예로 이수상,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1997)를 들 수 있다.

16)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8: 16-17.

17) Teun A. van Dijk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iscourse & Society* 4(1994): 249-283.

로 나뉘어서 관찰될 수 있다. 첫째는 일상적 언어의 영역이다. 일상의 언어는 사회적 제도들을 구성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매일매일의 사회적 상징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는 주로 사회의 기층을 구성하는 보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며,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을 예로 들어본다면 도서관이나 정보기관 현장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일반 사서들과 중간 관리자 이하의 전문직원, 일반적인 이용자들, 예비사서군인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 등과 그들의 생활세계, 그들이 생산해 내는 대화, 서신, 일기 등의 원자료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언어세계에 대한 접근은 주로 문화기술적 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과 그와 유사한 다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또다른 하나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담론의 영역으로 전자의 일상적 언술행위과는 구별된다. 말하자면, 담론이란 제도적 권력(power)을 매개로 한 심도있는 언술행위(serious speech act)로서,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화기술법이 주로 기층의 언어 활동에 관심을 갖는데 반하여, 담론분석은 주로 권력을 지닌 상층의 그것에 포커스를 둔다는 점을 차이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담론은 특정의 언술행위와 권력체계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 언어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영역에는 현장을 구성하면서 일정의 권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서관 현장의 관리자층, 도서관정책 당국, 도서관 관련 여론기체인 매스미디어, 그리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파워엘리트 집단으로서의 관련 학계 등이 포함된다. 전자의 언술적 활동이 주로 구두 커뮤니케이션이나, 비공식적 원자료들을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이들의 언술행위는 주로 공식적 매체와 물리적 형태를 통하는 표현방식 즉, 텍스트를 통한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그 생산, 수집, 분배 과정에서 이미 사회가 내화하고 있는 권력의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태의 언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매체일 수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권위를 보장받은 일부에 의해 소유되어지는 수단으로, 따라서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담론으로 놓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이 담론분석의 대상이다.

담론은 지식(knowledge)을 매개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담론은 사회 내에서 지식을 생산, 재생산하고 해체하는 수단이 된다.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매체를 프레임으로 수용될 수도 있고, 사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지식(public knowledge)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은 형태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전달, 수용, 교환되며 이것은 말로 한 것이거나 쓰여진 것이거나 모두 인간의 언술행위라고 하는 사회적 행위(social practice)에 의해서 표현(representation)된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인간의 언술행위를 통하여 사물을 사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언어와 사물의 링크가 곧 지식이라는 것이다.

18) 김정근, 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57-59.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지식은 사장되며, 어떠한 지식은 장기간 유지되는 권위를 지닌다. 어떤 지식은 개인의 주관으로만 존재하며, 어떤 지식은 모든 사람들의 신념을 지배하는 사회적 상징체계(symbolic system)로 작용한다.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하면, 이 사회적 상징체계는 신화(myth)와 생활방식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무의식을 접하며, 이를 통하여 상징적 권력(symbolic power)을 형성하고 그 권력을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¹⁹⁾ 따라서 담론이란 결국 어떠한 특정 영역의 사회적 지식과 행위를 특정한 관점에 입각하여 의미있게 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이다.²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론이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일련의 복잡한 공시적, 통시적 언술행위로서, 주로 일정한 상징적 권력을 지닌 텍스트의 형태로 사회화되며, 한마디로 제도적으로 일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심도있는 언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²¹⁾

사회과학에서 이 담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자체로서의 물질이 아닌 언제나 권력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담론의 형성과 전이 과정을 살피고, 그로 인하여 지식형성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담론은 그 정의상 이미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지식은 이미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담론은 지식을 생산, 수용하는 하나의 기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 전에 현장에서 생산되는 일상적 언어들을 일상의 일회적인 언술행위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정치력을 내포한 담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좋은 예로 김정근은 사서직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담론의 구조를 형성해 내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서직에 있어서 '언어가 "자기해방과 생존의 전략"이 된다고 주장한다.²²⁾ 또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는 현장 구성원들의 일상적 생활과 공식적 담론의 장에서 나타나는 이중언어의 구조(dichotomy)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그룹은 담론을 통하여 권력화, 정치화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서들에게는 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의 거의 유일한 언술의 장인 도서관보나 회보는 그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장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침없이 뱉아내던 치열한 문제의식들을 '도서관보'에 담아내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국면전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²³⁾ 이와 같이 일상적 지식이 정치력을 지닌 담론으로 구조화 정치화되지 못하

19)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0) Norman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1996: 14.

21) Hubert L Dreyfus and Paul Rainb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48.

22) 김정근, "사서직과 언어",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 3호(1993.8): 3.

는 요인은 담론을 매개로 한 상징적 권력이 언술의 법칙(speech codes)을 유지함으로써 그에 부합되지 않는 지식은 배제하는 체제(system of exclusion)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 체제를 분석하는 것이 담론분석의 영역이다.

4. 담론분석

담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파워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사회가 커뮤니케이션과 지식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말하자면, 담론을 통하여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지배의 메커니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과정, 변화, 발전 등 모든 사회적 양상이 텍스트에 반영되며, 따라서 담론은 사회적 재생산의 수단이다. 사회과학자는 사회구조, 사회적 상호관계 등을 연구하며 텍스트는 이러한 사회작용의 중요한 한 형태로서 단지 연구의 매개체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담론은 사회과학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현상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접근수단이 된다.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론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세밀한 양상과 설명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다.

담론분석은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푸코(Foucault)를 비롯한 프랑스 사회과학자들의 담론 이론과 텍스트들이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 번역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의 골자는 한마디로 언어와 담론이라는 것이 사회와 인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결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거나(transparent) 중립적인(neutral)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식과 사회적 연관성, 제도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통제하며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론의 조작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대학교 같은 사회적 기관들도 결국은 담론을 통해서 담론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은 사회적 제도 속에 존재하는 언어와 담론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이를테면 담론분석이란 어떠한 지식이나 사상, 개념 등이 쓰여지고 말하여지

23) 김정근, 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1994): 62.

는 방식을 해석적으로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상이나 지식이 다양한 사회제도나 인식론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용되는 방식, 그리고 이들이 그 지식과 사상을 다루고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의 언술이나 텍스트를 지식과 권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framework) 속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²⁴⁾ 이는 푸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의 담론을 가동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그 이외의 담론들은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어떠한 연구의 “과학성”을 이야기할 때 그 담론은 이미 과학적 연구를 적합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것은 부적합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²⁵⁾ 이 배제의 체계(system of exclusion)와 차이의 문화(culture of difference) 사이의 갈등과 과위의 매커니즘을 분석해 내는 것이 담론분석의 골자이다.

담론분석은 물론 담론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이다. 텍스트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쓰여진 것일 수도 있다. 책, 학술지, 연구논문, 인터뷰, 토론, 신문, 사료, 연설, 대화, 광고, 학술대회, 영화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포함된다. 페어클로우(Fairclough)는 담론에 대한 연구를 텍스트, 담론행위, 사회/문화적 행위의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담론행위(discourse practice)는 특정의 사회적 배경을 지닌 미디어, 사회제도, 그리고 제도권 저자들에게 의해서 텍스트가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행위는 이 담론행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지칭한다.²⁶⁾ 결국 담론분석의 목적은 학교나 직업세계와 같은 특정 형태의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적 관계와 아이덴티티, 지식, 그리고 권력 등이 쓰여진 또는 언술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구축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담론분석은 방법론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거시적 해체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텍스트를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사회적으로 조건화한 요인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다.²⁷⁾ 그 결과 담론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떠한 담론의 구조 내에 특정의 아이디어나 사회적 조건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담론 속에서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며, 그 조건과 화자, 청취자, 문화적, 역사적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떤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한 선택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motivation)를 파악하는 것이다.

24) John M. Budd and Douglas Raber. "Discourse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 in the Study of 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32(1996): 225.

25)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Writings and other Interview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1980: 82-85.

26) Fairclough. 3.

27) Ruth A. Palmquist. "Discourse Analysis." <<http://www.gslis.utexas.edu/~palmquist/courses/Discourse.htm>>

이러한 방법은 주로 1970년대 말 이후로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해 온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질적 연구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즉,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네오마르크시즘 등의 방법론은 주로 연구대상의 언술적 표현을 중요한 데이터로 여기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대상의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사회적 상호관계, 아이덴티티, 지식의 문제,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문헌비평(literary criticism), 비판적 문화기술법(critical ethnography), 그리고 수정주의 역사학(revisionist history)등에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카테고리로는 주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이론의 틀 속에 포함되어 있다.

5.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대상

전술한 바와 같이 담론분석은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담론에 대한 관심을 연구로 연결시킨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이 담론의 개념과 담론분석의 방법이 문헌정보학 연구에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드는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담론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적용한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기본적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 발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 문헌정보학 연구의 패러다임 문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적용가능성은 특히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우리 분야 연구에 있어서의 지배적 관점(research paradigm)에 대한 일련의 분석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먼(Frohmann)은 그의 연구를 통해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담론분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²⁸⁾ 문헌정보학의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이론 분야의 연구와 방법을 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그는 문헌정보학의 경우 특정의 분류체계라든지, 혹은 학계에서 경쟁 담론들의 우위에 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배담론들과 연

28) Bernd Frohmann. "Why Cultural Studies Matter to Information Studies." *Colloquium*,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8.11.6).

29) Bernd Frohmann. "Discourse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1994): 119-138.

구 관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담론분석이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는 듀우이의 초창기 사상과 듀우이 심진분류표의 아이디어들을 분석함으로써 듀우이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관료주의적(technobureaucratic) 측면을 비판하기도 한다.³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요한 경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 “시스템 중심적 사고에서 이용자 중심적 관점으로서의 전환 문제”와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인지적(cognitive) 관점의 발전과정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여 정보와 이용, 이용자에 대한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문헌정보학 담론의 기여와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그는 이 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정보활동의 사회성을 무시한 채 그 범위를 오로지 인간의 인식 내부에 한정된 차이(gaps)나 이례성(anomalies)의 문제로 제한하였다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론적 담론에 배태되어 있는 지식과 권력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 관점이 자연과학적 객관성, 이론적 종합성, 세계성, 지식의 지속성 등의 담론적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³¹⁾ 또 다른 한 연구에서 그는 도서관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를 도입문제를 분석한다. 그는 현장과 학계에서 그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도입 역시 특정의 시대를 구가하던 담론에 의하여 정치화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반대적 관점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테크놀로지를 가치중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이며,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아이덴티티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³²⁾

이렇게 볼 때 프로먼의 일련의 연구들의 의의는 아마도 그의 주장이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들과 그 이행과정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응용한다면, 가령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경향과 현재적 발전단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논문에 이어 진행될 후속연구에서는 담론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정의 망라적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담론적 구조(discursive structure)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 저널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논문들은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구성된 담론이다. 이 담론들은 연구논문이라고 하는 스피치코드에 부합되는 문체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저널의 편집정책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단을 통과한 정제(filter)된 언어로 구

30) 위의 글.

31) Bernd Frohmann. "The Power of Images: A Discourse Analysis of the Cognitive Viewpoint." in *Journal of Documentation*. 48(1992): 365-386.

32) Bernd Frohman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Politics of Postmodern Information Science." in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9 (1994): 1-22.

성된다. 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른바 게릴라 언어, 아웃사이더 언어들은 이 저널의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배제된다. 이렇게 최소한 저널수록과 출판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담론을 대상으로 그 이론적/ 인식론적 기초, 연구전략, 역사적 관점, 현장성, 그리고 지식의 정치학(politics of knowledge)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걸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구체적인 연구경향이 어떠한 변화의 추이를 지니고 있는지, 담론의 생산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그룹에 의하여 담론의 장이 지배되고 있는지, 연구의 근거로 삼는 지식의 생산, 입수, 소비과정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속에서 차이의 문화의 수용과 배제의 체제의 작용 여부, 그리고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의 정체 등을 밝힐 수 있다.

2) 지식과 권력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회에 있어서 지식의 생산, 유통, 축적은 권력(power)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 내재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담론을 통해서이다. 도서관의 발전과정 역시 이러한 분석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역사적 조망 속에서 도서관 발전의 사회적 순요인과 역요인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집적체를 통하여 그 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사회적 지식의 표본은 다름 아닌 공공도서관의 장서이며, 그 속에도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여지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김영기는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에서 도서관의 목적을 지식의 권유, 분배, 보존, 발체로 파악하며, 도서관이 역사적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존재해 왔다고 본다. 다만 도서관과 관련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도서관의 권력에 대한 동화(conformity)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 관계 역시 문화적 기제를 통하여 은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³³⁾

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장서는 “한 사회가 이루어낸 지적 생산물의 거대한 저장소로서 사회적 담론의 핵심 광장”이다. 그런데 이 지식의 집적체는 도서관인의 손에 의하여 구성되지만,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도서관 외부의 요인, 즉,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가운데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한 입장이며, 그리고 그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지배하는 출판의 환경과 도서유통의 구조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논점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장서를 그 자체로서 파악하기보다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정의 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집적되어 유통되는 지식의 조감도를 그려내며, 그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떤 장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왜 그러한 구성을 지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33)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한울, 1999.

맥락 속에서 지식체제의 구축과 권력과의 관계를 파악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편견과 왜곡 그리고 허위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현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지하지 못하는 불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원인으로 “교양,” “상식”이 공공도서관의 주류성향을 지배해온 담론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3) 도서관운동사에 대한 접근

최근에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에 대한 주제적 자각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면서, 우리의 특수한 도서관 상황을 인식하는 대체적 관점으로서의 도서관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 가령, 김종성은 <한국학교도서관운동사>에서 도서관운동의 역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세부영역에서 생산된 담론에 대한 역사적, 미시적, 심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³⁴⁾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담론을 통해본 학교도서관의 역사 즉, “학교도서관운동사”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운동적 요소에 대한 취사와 역사적 재구성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은 사회운동이라는 하나의 사회현상 속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담론분석이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의 역사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정책자료, 매스미디어의 도서관 관련보도, 정책담당자, 전직 사서교사 등의 증언 등을 분석하여 그 정치성과 제기성을 파악해 내고 있다. 그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부재와 피동성이라는 현상이 공교육기제의 불구성이라는 상부구조에 의해서 결정지워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도서관의 문제는 항상 교육의 문제 속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교육은 언제나 국가변영의 관건으로 규정지어진다. 그러나, 국가적 권력 이념과 사회적 억압의 구조가 생산하는 거대한 담론은 교실이라는 작은 세상에도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며, 학교도서관은 이 체제를 반영하고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학교도서관운동이란 이에 대한 대항담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교육 제도 개선, 교육개혁, 그리고 교수방법의 개선 등을 둘러싼 수많은 담론들, 그리고 대항담론으로서 참교육과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개혁, 혹은 교육정보화, 독서교육 등의 담론들까지, 학교도서관운동사는 학교도서관을 내포한 교육 담론의 역사적 분석 속에서 파악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아주 최근까지도 이 담론들이 교육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쇠퇴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의 인식을 지지하는 축은 크게 두 가지로 학교도서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이 구성하는 담론과 우리나라 교육은 궁극적으로

34) 김종성, 『한국학교도서관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

자율성, 창의력을 강조하는 참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담론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이라는 현실을 사회, 역사적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통적인 학교도서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운동의 단초라고 보고 있다.

6. 결 론

10여년전 도서관학과 학생이었던 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다. 이를테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관학 관련서적은 모두 사서 모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당시 관련 출판물의 규모를 보아 해 볼 만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후 대학원에서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긴 어느 선배의 서가 앞에서 주눅들었던 기억도 있다. 어쨌거나 나는 오래 지 않아 이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도서관학 책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앞의 서점에서 해당학기의 교재가 아닌 도서관학 서적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방법은 시내의 대형서점에 가서 서가 두세칸 남짓한 도서관학 섹션을 뒤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말이다. 그 서점의 도서관학 섹션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뽑아낸 책들은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앞서서의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서적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동안 (알다시피 80년대는 사회과학출판의 전성기였다) 도서관학 섹션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서점의 외진 곳을 찾아 헤매곤 했다. 나는 도서관학 서적들이 대학교의 같은 건물에 들어있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그들과 같은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이 못내 억울했다.

대학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 나는 대학교 앞 서점의 사회과학 섹션에서 비로소 몇 권의 문헌정보학 서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 관련 출판물의 양도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문헌정보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서점의 서가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문헌정보학이 그 열린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문헌정보학계의 출판 경향 같은 주제를 가늠할 수는 없다. 퍼블리케이션의 정치학과 학문의 경쟁력 같은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러한 삽화를 드는 이유는 문헌정보학이 다른 사회과학, 인문학, 혹은 자연과학 분야와의 공개된 장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

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연구의 대상과 방법의 문제를 화두로 삼아 새로운 사회과학적 연구의 전통을 세우면서 그 연구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경향과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문헌정보학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학문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학문의 대상과 영역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창출해내며, 자신들의 궤도를 수정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방송학(communication studies)의 경우, 최근까지 학문 성격에 관련된 주된 논의는 신문방송학을 더 이상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기능학문이 아닌 사회과학으로 정립하자라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역사는 문헌정보학이 이러한 사회과학 전반의 움직임에 무관심하며, 오히려 기능중심주의로 회귀하는 역행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위겐드(Wiegand)는 문헌정보학 담론에서 현대 사회과학에 있어서 비판이론의 맥을 형성하고 있는 푸코, 그람시(Gramsci), 하버마스(Habermas) 등의 학자들의 지식과 권력, 문화와 불평등과 인간해방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³⁵⁾ 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내부에서도 사회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방법론적 실험에 임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에서 문화기술법에 대한 연구서,³⁶⁾ 또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응용한 연구³⁷⁾ 등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정보서비스는 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문화기관의 정보매개체로서의 성장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경제, 매체경제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상징의 상호교환, 즉 담론과 텍스트의 교환이 주요한 가치로 전환된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정보서비스가 위협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관점은 한계를 지니며,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지식과 정보는 사회와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문헌정보현상을 매개로 한 실천과 이론 속에서 언어와 담론과 텍스트가 어떻게 구축되고 소비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분석은 문헌정보학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위겐드의 비판을 무심코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학문은 그 스스로가 만든 담론의 틀(discursive formation) 속에 발이 묶여

35) Wayne A. Wiegand. Tunnel Vision and Blind Spots: What the Past Tells US about the Present: Reflections on the Twentieth-Century History of American Librarianship. *The Library Quarterly*. 69(1999): 23.

36)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8.

37) 이소연.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새천년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124-142.

있는 것 같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로 우리끼리만 이러쿵저러쿵 하며, 예를 들어 계급이나 연령(age), 성(gender) 같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들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 지식의 커넥션 같은 문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 ... 우물 안 개구리인 셈이다.³⁸⁾

38) Wiegand 24.

참 고 문 헌

-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한울, 1999.
- 김정근. “사서직과 언어”,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 3호(1993.8): 1-3.
- 김정근, 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1994): 1-73.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문헌정보학강좌. 서울: 한울, 1995.
-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8.
- 김정근, 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55-75..
- 김종성. 『한국학교도서관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 이소연.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새천년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124-142.
- 이수상.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1997.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8.
- Bender, Thomas. “Politics, Intellect, and the American University, 1945-1995.” in *American Academic Culture in Transformation: Fifty Years Four Disciplines*. ed. Thomas Bender and Carl Schorsk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17-54.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Budd, John M. and Douglas Raber. “Discourse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 in the Study of 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32(1996): 217-226.
-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 Butler, Pierce.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in *Landmarks of Library Literature, 1876-1976*. ed. Dianne J. Ellsworth and Norman D. Stevens. Metuchen, NJ: Scarecrow, 1976.
- Dreyfus, Hubert L. and Paul Rainb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Fairclough, Norm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1995.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Writings and other Interviews 1972-1977*.

-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1980.
- Frohmann, Bernd. "The Power of Images: A Discourse Analysis of the Cognitive Viewpoint." *Journal of Documentation* 48(1992): 365-386.
- Frohmann, Bernd. "Discourse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1994): 119-138.
- Frohmann, Ber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Politics of Postmodern Information Science." in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9 (1994): 1-22.
- Frohmann, Bernd. "Why Cultural Studies Matter to Information Studies." *Colloquium*,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8. 11. 6).
- Harris, Michael H. "The Dialectic of Defeat: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34(1986)515-530.
- Jones, Graham. "This Incredible Stream of Garbage: The Library Journals, 1876-1975." *The Indexer*. 10(1976): 9-14.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Lynch, Beverly P.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Rethinking the Librar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DC: US GPO, 1989: 75-92.
- Palmquist, Ruth A. "Discourse Analysis." <<http://www.gslis.utexas.edu/~palmquis/courses/Discourse.htm>>
- Rubin, Richard 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1998.
- Rayward, W. Boy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Disciplinary Differentiation, Competition, Convergence." in: *The Study of Information: Disciplinary Messages*. ed. Fritz Machlup and Una Mansfield. New York: Wiley, 1983: 343-363.
- Van Dijk, Teun A.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iscourse & Society* 4(1994): 249-283.
- Wiegand, Wayne A. "Tunnel Vision and Blind Spots: What the Past Tells US about the Present: Reflections on the Twentieth-Century History of American Librarianship." *The Library Quarterly*. 69(1999): 1-32.